

대경명예기자 리포트



김석동 명예기자 지평인문사회학대

김석동의 실크로드 대장정 ③

우즈베키스탄 중동부에 위치한 도시 사마르칸트는 실크로드 '오아시스 길'의 중심 도시다. '세계의 문화 교차로'라고도 불렸던 이곳에는 교역로로서 번성했던 도시답게 수많은 유적이 남아 있다. 사마르칸트는 대제국을 건설한 '아미르 티무르'의 고향이자 14세기 당대 최고의 도시였다.

이곳에는 한민족과 연결돼 있는 특별한 유적도 있다. 1965년 발견된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가 그것이다. 벽화에서는 고대 한국 특유의 복식을 하고 있는 사신 2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벽화에서도 중앙아시아인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대로부터 이들 지역과 교류가 깊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티무르의 관 열면 전쟁” 예언 무시한 스탈린... 결국 독일 침공 받아



실크로드 무역로의 중심지인 사마르칸트의 레기스탄 광장.

기마군단이 휘젓던 만주·연해주 이젠 유라시아 횡단 철도가 달려

드넓은 땅. 만주(滿州). 140만km를 넘는 만주는 중국 행정구역인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3성을 지칭하지만 넓게는 내몽골 자치구 동부지역과 러시아 연해주(沿海州)까지 포괄하는 지역이다. 동으로는 동해, 서로는 요하, 남으로는 압록강·두만강, 북으로는 흑룡강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다. 만주 역사를 보려면 먼저 고조선의 역사를 봐야 한다. 이어 부여가 역사를 이어갔고, 고구려가 700년 가까이 존재했다. 고구려는 멸망 후 30년 만에 다시 후고구려를 건국한 뒤 멸망하는 이름으로 228년간 만주에서 터를 닦았다. 926년 발해가 멸망하면서 수천 년 이어온 한민족 역사의 무대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후 거란, 여진, 몽골 등 북방민족의 지배가 차례로 이어졌다. 1115년 여진족의 영걸 아골타가 금(金)을 건국해 거란을 멸망시키고 송나라를 남쪽으로 내쫓고 만주 일대와 중원을 장악했다. 그러나 몽골 제국의 등장으로 100년 남짓 만에 역사에서 사라진다. 이후 만주 일대에 흩어져 살던 여진의 후예들은 300년이 지난 후 누르하치의 영도하에 후금을 건국한다. 여진은 한민족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금사(金史)'에서는 "금나라 시조는 '함보'인데 처음 고려에서 왔다" 하며, '고려사'에서는 "옛날 우리 평주의 중 금준(함보)이 여진으로 숨어들어가 살았는데 이이가 금나라 선조"라고 한다. '만주원류고'에서는 "청나라 왕조가 금나라와 갈래가 같다"고 한다.

북방민족 사학자인 전원철 박사는 대조영의 동생이자 발해 제2왕가인 대야발의 5세손이 함보이며, 그 7세손이 금태조 아골타라 한다. 청태조 누르하치도 아골타의 후예로 발해 왕가라 밝히고 있다. 발해는 거란에 의해 멸망했지만, 발해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그 땅을 여진이라 불렀을 뿐이다. 그 지역의 발해인 또한 여진족이라 불렀다. 금태조 아골타는 '금사'에서 "여진과 발해는 본래 같은 집안"이라고 했다.

잇힌 땅 연해주는 흑룡강, 우수리강, 동해로 둘러싸인 땅으로 러시아의 83개 연방지역의 하나인 '프리모르스키' 지방을 말한다. 주도는 블라디보스토크로, 두 번째로 큰 도시 우수리스크는 연해주 고려인들의 본거지로 꼽힌다. 이곳은 독립운동의 기점이기도 했고, 스탈린시대의 1937년 우수리스크 남쪽에 있는 '라스들로예'역에서 17만명의 한인들이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했던 애환의 땅이기도 하다.

연해주에는 22개군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는 군이 '하산'군이다. 중국의 광환(防川), 북한 두만강과 접경하고 있는 이곳에서 동해를 접하고 있는 마을이 옛 발해의 영주성이 자리잡았던 '크라스키노'다.

이 지역 일대에 있었던 '동경유원부'는 3대 문왕 후기부터 5대 성왕 초까지 10년간 발해의 수도였고, 그 위치는 두만강 인근 간도의 중국 헤이룽장성 훈춘현으로 추정된다.

그 옛날 '유라시아 기마군단'이 달렸던 길을 이제는 철마가 달리고 있다. 유라시아 횡단철도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모스크바까지 장장 9288km를 달리며 대초원 북부를 연결한다. 만주횡단철도(TMR)는 두만강 유역인 중국 투먼에서 장춘·하얼빈 등 만주 지역을 통과해 러시아 치타에서 TSR와 연결된다.

한반도종단철도(TKR)는 각각 부산과 목포에서 서울로와 대륙 4개 철도망과 연결하려는 것이다. 이 길들은 과거 수천 년 전부터 한민족이 국가를 건설하고 활동하던 무대다. 한반도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울란우데까지 가는 TSR, 만주의 TMR, 그리고 몽골의 TMGR가 달리는 길도 바로 고조선 영역이다. 기마군단이 달리던 길을 이제 철마가 달리고 있다. 앞으로 한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대역사도 유라시아 실크로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시리즈 끝>

유라시아 횡단철도 노선



세계 문화교차로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엔 고대 한민족 사신 모습 보여

칭기즈칸 '몽골제국' 부활 꿈꾼 티무르·무굴 흥망성쇠 한눈에



티무르의 묘인 사마르칸트 구르에미르 지하에 위치한 티무르의 관. 스탈린이 관을 열면 전쟁이 벌어지자 공개를 금지했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브 궁전 벽화의 해석도. 조우관 쓴 오른쪽 2명이 한민족 인으로 추정된다.

칭기즈칸 이후 최초이자 최후의 대륙의 지배자가 됐다. 티무르제국은 중앙아시아·이란·아프가니스탄을 지배했고, 남북으로 러시아 내륙에서 북인도까지, 동서로 중국 변경에서 현재 터키가 위치한 아나톨리아반도까지 정복했다.

티무르제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중심이 됐고, 사마르칸트는 크게 번성했다. 티무르는 칭기즈칸이 이뤘던 실크로드의 대통일을 다시 이루기 위해 정복 여정에 나섰다. 1398년 북인도를 정복한다. 1402년에는 실크로드의 기능을 차단하던 오스만튀르크 군을 터키 앙카라에서 섬멸한다. 이로 인해 유럽은 오스만튀르크의 공격에서 살아남았고, 실크로드도 부활하게 됐다. 오스만군은 이 전쟁 후 50년간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한다.

그는 연이어 실크로드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명나라 원정에 나섰다. 1405년 병사하고 말았다.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동서 교역로를 활짝 열고자 했지만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티무르제국이 멸망한 이후 중앙아시아 카불 지역에서 티무르의 5대손인 '바부르'가 등장했다.

바부르는 1526년 파니파트전에서 1만2000명의 기마군으로 코끼리 1500마리를 앞세운 18만명의 술탄 대군을 격파하고 델리를 점령했다.

이렇게 세운 나라가 330년간 지속된 무굴제국이다. 무굴(Mughul)은 '몽골에서 온 사람들'이란 페르시아어에 기원한다. 몽골제국이 인도 땅에서 무굴제국으로 역사에 재등장한 것이다.

바부르는 몸소 전쟁터를 지키고 전투에 앞장서며 유라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왕조를 세웠다. 그러나 사마르칸트에 진출해 티무르제국을 복원하는 꿈은 이루지 못했다. 그의 5대 후손인 '샤자한'은 제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는데, 지금의 울드델리를 건설하며 수많은 건축물을 남겼다. 인도 아그라의 타지마할은 열네 번째 아들을 낳다 죽은 그의 부인을 위해 세운 찬란한 건축물이다.

영국은 무굴제국이 약화된 1857년 무굴제국을 완전히 멸망시켰다.

이로써 12세기에 출범한 몽골제국은 티무르제국·무굴제국으로 이어지다 모든 흔적이 지워지게 됐다.

김석동 명예기자·최승진 기자 정리

중앙아시아는 실크로드의 관문으로 스키타이 이래로 몽골 그리고 이후 18세기까지 동서문명 교류의 중심이다. 중앙아시아는 우리나라와 생활·문화·언어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북방 알타이 문명에 같은 기원을 두고 있다.

한반도는 동서문명의 교역로인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며, 신라·발해·고려시대에 이미 실크로드의 '쇼그드인'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교류해 왔다.

유라시아 전역을 지배한 몽골제국은 광활한 영토를 4개 국가(ulus)로 나누어 통치했다.

그러나 300만km를 넘는 이 세계 제국도 정치적 분열과 내분·붕괴에 의해 차례로 쇠락의 길을 걷는다. 원나라는 1368년 명나라에 나라를 넘겨주고 몽골고원으로 쫓겨난다.

'일칸국'도 1330년대부터 전쟁과 혼란이 이어지다 1353년 80년 만에 막을 내렸다. 비교적 오랜 기간 존속하면서 러시아를 240년간 지배한 '킵차크 칸국'도 역시 내분과 피정복 민족의 반란으로 1480년 멸망했다. 동서 교역로인 비단길에 위치한 '차카타이 칸국'은 혼란과 불안정이 지속되다 1334년 이후 분열되고 이에 따라 실크로드도 차단됐다.

혼란의 와중에 있던 차카타이 칸국에서 1336년 '철의 군주'라 불리는 아미르 티무르가 사마르칸트 부근 케슈에서 태어났다.

그는 몽골 코를라스족의 바를라스계 가문으로 칭기즈칸의 방계 후예다. 티무르는 천부적인 용맹과 지략을 바탕으로 어릴 때부터 부족 간 투쟁이 지속되는 혼란 속에서 전장을 전전하며 성장했다.

몽골제국 재건을 기치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중앙아시아를 통일해 1370년 '티무르제국'을 건설했다. 그가 직접 지휘한 강력한 기마군단은 적지에서 치러진 총 170일간의 전투에서 단 하루도 패배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의 신'이라 칭송되던 인물이다.

소련을 지배했던 스탈린이 이를 부러워해 티무르 유해를 찾아오도록 했다는 일화가 있다. '티무르 관 열면 전쟁이 벌어진다'는 예언이 있었지만, 스탈린은 티무르 관을 열었다고 한다. 이후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다. 예언을 두려워한 스탈린은 다시 관을 덮은 뒤 다시는 관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유목민의 군사력과 정주민의 경제력을 통합해